

고규홍의 '나무 생각'



평양에 간 모감주나무의 안부가 궁금하다

요즘 셋노란 모감주나무 꽃이 한창이다. 이른 봄 초록 잎이 나기 전에 꽃이 피는 개나리 영춘화와는 달리, 초록 잎이 무성하게 뻗어 오를 가지 끝에서 작은 꽃송이가 곱갈 모양으로 조동조동 모여 피어나는 모감주나무 꽃은 여름이 성큼 다가왔다는 신호다. 이제 여름이다.

충남 태안의 안면도에는 천연기념물 제138호로 지정된 모감주나무 군락지가 있다. 무려 400그루가 넘는 모감주나무가 무리를 지어 자라는 아름다운 바닷가 숲이다. 모감주나무 자생지로서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 할 만하다.

중국의 산둥(山東)반도 앞에 떨어진 모감주나무 씨앗이 바다를 건너와 자리 잡았다는 이야기가 오랫동안 전해 왔다. 모감주나무의 자생지를 나라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던 시절에 나무의 근원을 궁금해 한 옛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로 짐작된다.

최근에는 서해 백령도와 충북 월악산, 대구 내곡동, 경남 거제 한해리 등 여러 곳에서 자생지가 발견되었고, 이 가운데 원도 대문리와 경북 포항 발산리의 자생지도 안면도 숲처럼 천연기념물로 지정

됐다. 또 지난주에는 경북 안동에서도 1000그루쯤 되는 모감주나무가 무리지어 자라는 군락지를 발견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모두 모감주나무가 우리의 토종 나무라는 분명한 증거다.

모감주나무 가운데 앞으로 오래 잘 보존해야 할 나무 한 그루가 있다. 지난해 9월에 평양을 방문한 대통령이 평양 백화원 정원에 평화와 번영의 상징으로 손수 심은 나무다. 한반도 남쪽 기후에서 자라는 나무가 평양의 추운 기후에 얼마나 잘 적응했는지, 또 이곳에서처럼 그곳에서도 노란 꽃이 화사하게 피어났는지 궁금하다.

모감주나무는 중부 이남 지역, 구체적으로는 황해도와 강원도 이남 지역의 따뜻한 곳에서 자라는 나무다. 따라서 차가운 평양의 기후에서 자라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물론 최근의 기후 변화로 평양에서도 잘 자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게다가 그곳 사람들이 정성껏 보살필 테니,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무의 생육은 사람의 정성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니다. 우선 나무의 생

육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후란 허더라도 사람으로서 어쩔 도리가 없는 요인이다. 한 송이 꽃이 피어나려면 봄부터 소쩍새도 울고, 비바람도 우습히 불어야 하며, 햇살도 적당해야 한다. 아무리 작은 나무라도 더불어 살아가는 다른 생명과 알맞춤한 조화를 이뤄야 한다. 그게 생명의 이치다. 사람의 힘만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다.

고려 때의 시인 이규보만 하더라도 '꽃심을 땀 안 팔까 걱정하고(種花愁未發) 꽃 피니 시들까 시름한다(花發又愁落) 피고 지는 게 모두 근심이니(開落總愁人) 꽃 키우는 즐거움 알 수 없네(未識種花樂)'라는 오언절구의 한시를 남겼다. 여기서 꽃 심는 일을 근심투성이라고 한 건, 인력으로 어쩔 수 없는 변수가 많기 때문이리라.

근심의 깊이는 싹이 트고 꽃이 피어날 때 받는 즐거움의 크기와 비례한다. 간절한 실행과 오랜 기다림이 이어진 뒤의 일이어서다. 더구나 예측 불가능한 개화는 더 놀라고 기쁠 수밖에 없다. 나무를 심고 꽃 피우는 일만 그런 게 아니다. 사

람사이에서도 오랜 기다림과 실행을 안고 기다려 오던 일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시간에 뜻밖의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걸 바라보는 기쁨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마련이다.

지난 일요일 이른 오후, 휴전선에서 벌어진 역사적 사건이 그랬다. 짐작조차 못했던 뜻밖의 사건이었다. 놀라웠지만 반가웠다. 마치 근심 속에 씨앗을 심고, 꽃을 기다리던 중의 어느날, 갑자기 피어난 꽃을 만났을 때의 상황과 다르지 않았다. 온 세계의 시선을 모았던 그 짧은 순간의 사건은 우리 민족 모두가 간절한 실행과 오랜 기다림으로 버리던 화합과 평화의 길로 성큼 나아가는 중요한 한 걸음으로 여기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이북의 차디찬 바람을 맞으며 낯선 평양에서 처음으로 여름을 맞이한 모감주나무의 안부가 궁금해진 건 그래서였다. 따뜻한 기후에서 자라는 모감주나무이지만 한반도 한복판에서 불어오는 훈풍을 맞으며 아마도 뜻밖이 더 아름다운 꽃을 피웠으리라 믿고 싶다.

(나무칼럼니스트)

의료칼럼

치매와 통풍



김지용 청연한방병원 병원장

호르몬의 영향으로 요산 제거 능력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최소 20년간 지속되는 고요산혈증이 지난 후 혹은 그 이내에 첫 번째 급성 통풍 발작이 나타날 수 있다. 이때 발작은 엄지발가락 근저부 관절, 발등, 발목 관절, 발꿈치 힘줄, 무릎 관절, 손등, 손목 관절, 팔꿈치 등에서 하나의 관절을 침범하게 된다.

통풍은 발가락 근저부 관절에 가장 흔하게 발병하는데, 돌발적인 통증과 함께 붉게 부어 오르는 것이 특징이다. 심한 경우에는 스치기만 해도 아프며 온몸에서 열이 나기도 한다. 그러나 4-5일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통증과 붓기가 경감되며, 피부가 검붉게 변색되면서 표피 각질층이 벗겨지고 관절 기능도 완전히 정상화된다.

침습이 끝난 뒤에는 비교적 건강하게 보이고 평소와 다름없는 생활을 유지하는데, 대개 1년쯤 지난 후 돌연 발작이 나타나고 점차 발작의 간격이 짧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통풍이 만성화가 되면 통풍 결절이 서서히 생기게 된다. 통풍 결절은 깃바퀴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며 손가락, 손, 발가락, 발목, 무릎 등에 비대칭적이고 울퉁불퉁한 덩어리를 형성하게 되며 침범

부위의 관절에 점진적인 뻣뻣함과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한다. 통풍 결절이 장기화되면 관절의 변형과 불구가 나타나기도 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통풍은 혈중 요산 농도가 높을수록 발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고요산혈증은 요산 생성의 과다 혹은 요산 배출의 감소로 발생하는데 간혹 위의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작용하게 된다.

요산 생성 과다를 일으키는 퓨린이 다량 함유된 식품에는 생선 내장, 생선 알, 갑각류, 맥주 효모, 닭고기, 쇠고기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퓨린은 정상적인 대사 과정을 거치고, 이로 인해 생성된 요산은 모두 땀이나 소변을 통해 배출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요산혈증 환자는 요산 배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준치를 넘는 퓨린이 많은 음식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 요산의 생성이 많아져 통풍이 발생하기 쉽다. 특히 술은 요산이 소변을 통해 빠져나가는 것을 방해하며, 맥주 효모는 퓨린 함량이 높은 편이므로 맥주를 즐기는 사람에게 통풍 발병률이 높을 수 있다.

그렇다면 치매는 어떨까? 치매가 통풍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치매 때문에 통풍이 온다는 것 역시

단정할 수 없고 입증된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닭고기보다는 어패류 등에 퓨린 함유가 높다고 볼 수 있으며, 통풍이 음식의 영향도 받지만 개인적인 변수가 상당히 작용하기 때문에 치매를 먹는다고 해서 모두가 통풍에 이환되는 것도 아니다.

통풍에 있어서 치매는 다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건 맞지만 기름진 음식의 과도한 섭취와 지나친 음주를 지양해서 나쁠 것은 없을 것이다.

통풍의 치료는 급성 발작을 막고 재발을 방지하며 합병증의 발현을 감소시키는 데 있다. 급성기에는 통증과 부종을 감소시키기 위해 안정을 취하고 침범된 관절을 고정한다. 수분을 섭취하고 얼음찜질을 시행해야 하며, 이후 요산 수치를 감소시키기 위한 약물 치료와 더불어 식이 요법과 생활 습관의 교정이 필요하다.

한방 의료기관에서는 개개인의 통풍 진행 경과 및 증상에 맞춰서 적절한 치료법을 제시하고 있다. 국소 압통점에 침 치료와 함께 소염 진통 및 항염증 작용이 있는 약침과 봉침을 병행하면 통증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통풍의 재발이 두렵거나 통풍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가까운 한방의료기관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자.

社說

'뜨거워지는 바다' 고수온 피해 예방 만전을

기후 변화로 갈수록 바다 수온이 높아지면서 고수온과 적조 또는 해파리 등으로 인한 전남 어민들의 피해가 최근 10년간 1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 여름에도 수온이 1도 가량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인데 무더위가 시작되자 어민들이 어떤 긴장하고 있다.

전남도는 기후 관련 각급 국제기구의 장기 기후예측 모델 분석 등을 토대로 올 여름 국내 연안의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1도 가량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하순에는 수온이 어류 폐사 우려 수준인 28도까지 올라가면서 고수온주의보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수온에 영향을 받는 적조도 이달 하순께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 달 초순에는 확산이 예상된다.

고수온이 계속되면 양식 어류의 경우 생리 기능 저하, 면역력 약화, 산소 부족으로 대량 폐사가 발생할 수 있고 패류 역시 먹이 활동과 성장도가 낮아지며 질병

감염이 증가할 수 있다. 실제로 전남에서 지면서 고수온과 적조 또는 해파리 등으로 인한 전남 어민들의 피해가 최근 10년간 다섯 차례 발생해 593억 원의 피해를 냈다.

여기에 수온 상승으로 아열대성 해파리 떼가 잇따라 출현하면서 어구 파손 및 물고기 품질 및 가격 저하로 인한 피해도 막대하다. 전남에는 육상 수조식 양식장이 1294곳, 해상 가두리 667곳, 축제식 양식장은 320곳에 달하는데 반복되는 고수온 피해로 어민들의 기쁨은 타들어 가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상 상황을 정밀하게 살피면서 예방 체계를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 어민들도 대량 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과 어장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아울러 자연 재해에 취약한 해상 가두리 대신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외해(外海) 어장을 적극 개발하는 등 근본 대책 마련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안전시설 없는 위험한 선착장 서둘러 손봐야

광주일보 취재진이 최근 여수, 신안, 전남 지역 선착장 몇 곳을 직접 찾아 점검해 본 결과 안전시설을 갖추지 못한 곳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수시 금오도 남면 직포항 선착장의 경우 차량의 바다 추락을 막기 위한 안전펜스나 경계석 등 기본적인 안전 시설물이 전혀 없었다. 여수 신기항과 신안군 압해읍 송공항 선착장 역시 제방 가장자리에 안전펜스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처럼 도내 항구 내 안전시설물이 부실하다 보니 사고가 아니 날 수 없는데 이는 통계에서도 쉽게 확인이 된다. 서해해경청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바닷가 차량 추락 사고는 2016년 16건, 2017년 25건, 2018년 18건 등 총 59건에 달했다. 이로 인한 사망자도 2016년 4명, 2017년 7명, 2018년 10명 등 총 21명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대책은 아예 없거나 허술하다. 예를 들어 지난해 1월 경운기를 몰

고 가던 주민이 추락해 숨진 사고가 있었던 완도군 금일읍 사동항의 경우 주민들이 행정 당국에 제방도로 양쪽으로 가드레일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2년이 다 돼 가는 지금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각 항구마다 법정어항(국가어항·지방어항·어촌정주어항)과 비법정어항 여부에 따라 안전시설물 관리 주체가 다른 것도 문제다. 마을 어촌계가 관리 주체인 비법정어항은 타어항보다 안전 설비가 더욱 열악하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있다. 전남에는 연간 4000만여 명의 관광객들이 찾는다. 서해해경청과 각 행정기관 및 마을 어촌계 등이 지역 선착장의 안전 실태를 파악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도내 선착장의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 수립과 함께 지속적인 점검이 있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극장문을 나서다 노년의 부부가 나는 대화를 들었다. 나 역시 영화를 보는 내내 비슷한 생각을 했다. "한 인간에게 저런 삶을 살게 만든 건 과연 무엇이였을까?" 그의 마지막이 어땠는지 책과 사진으로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정부군에 총살당하는 모습을 맞닥뜨릴 땐 깊은 한숨이 나왔다.

영화에서 참 인상적인 건 끝없는 행군 해 쿠바 혁명을 성공시켰으나 권력과 안락한 삶을 버린 채 다시 콩고를 거쳐 볼리비아 게릴라로 활동하다 최후를 맞은 인물.

체 게바라

체 게바라(1928년~1967)는 인간의 존엄과 용기를 해치는 세상의 모든 불의에 분노할 줄 아는 진정한 혁명가였다. 그는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속에 불가능한 꿈을 꾸자"라고 했다. 사르트르는 체 게바라를 "20세기 가장 완전한 인간"이라 칭했다.

영화 '체 게바라-2부 게릴라'는 그가 볼리비아 무장 게릴라의 리더로 활동하는 모습과 죽음을 생생히 담고 있다. 아카데미 감독상 등을 수상한 스티븐 소더버그가 메가폰을 잡았다. 체 게바라 역할

을 맡은 베니치오 델 토로는 이 영화로 칸 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영화는 300여 일이 넘는 투쟁 과정을 마치 다뤘다. "내가 정말 싫어하는 것은 어떤 현실에 정면으로 맞서는 용기가 부족한 것이다"고 말하는 그는 "당신은 무엇을 믿느냐"는 한 게릴라의 질문에 '인간'이라고 답한다.

영화에서 참 인상적인 건 끝없는 행군 해 쿠바 혁명을 성공시켰으나 권력과 안락한 삶을 버린 채 다시 콩고를 거쳐 볼리비아 게릴라로 활동하다 최후를 맞은 인물.

체 게바라(1928년~1967)는 인간의 존엄과 용기를 해치는 세상의 모든 불의에 분노할 줄 아는 진정한 혁명가였다. 그는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속에 불가능한 꿈을 꾸자"라고 했다. 사르트르는 체 게바라를 "20세기 가장 완전한 인간"이라 칭했다.

영화 '체 게바라-2부 게릴라'는 그가 볼리비아 무장 게릴라의 리더로 활동하는 모습과 죽음을 생생히 담고 있다. 아카데미 감독상 등을 수상한 스티븐 소더버그가 메가폰을 잡았다. 체 게바라 역할

을 맡은 베니치오 델 토로는 이 영화로 칸 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영화는 300여 일이 넘는 투쟁 과정을 마치 다뤘다. "내가 정말 싫어하는 것은 어떤 현실에 정면으로 맞서는 용기가 부족한 것이다"고 말하는 그는 "당신은 무엇을 믿느냐"는 한 게릴라의 질문에 '인간'이라고 답한다.

영화에서 참 인상적인 건 끝없는 행군 해 쿠바 혁명을 성공시켰으나 권력과 안락한 삶을 버린 채 다시 콩고를 거쳐 볼리비아 게릴라로 활동하다 최후를 맞은 인물.

체 게바라(1928년~1967)는 인간의 존엄과 용기를 해치는 세상의 모든 불의에 분노할 줄 아는 진정한 혁명가였다. 그는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속에 불가능한 꿈을 꾸자"라고 했다. 사르트르는 체 게바라를 "20세기 가장 완전한 인간"이라 칭했다.

영화 '체 게바라-2부 게릴라'는 그가 볼리비아 무장 게릴라의 리더로 활동하는 모습과 죽음을 생생히 담고 있다. 아카데미 감독상 등을 수상한 스티븐 소더버그가 메가폰을 잡았다. 체 게바라 역할

을 맡은 베니치오 델 토로는 이 영화로 칸 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영화는 300여 일이 넘는 투쟁 과정을 마치 다뤘다. "내가 정말 싫어하는 것은 어떤 현실에 정면으로 맞서는 용기가 부족한 것이다"고 말하는 그는 "당신은 무엇을 믿느냐"는 한 게릴라의 질문에 '인간'이라고 답한다.

기고

광주 세계수영대회에서 평화를 춤추게 하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에 바란다



이지현 5·18부상자동지회 초대 회장 시인·연극인

우리의 과거사를 공부하면서, 분단된 역사의 의인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구나 하며 후회했다. 6월에 대한 뼈저린 상처는 어디 필자에게만 남아 있었는가?

우리는 6월에 두 분의 훌륭한 분과 이별을 해야 했다. 한 분은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을 만나 한평생을 기다림과 환하고 고통으로 사신 이회호 여사님이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윤석동 어르신인데, 전두환 노태우가 이끄는 공수부대와 맞서 민주주의의 새벽을 밝히다 산화한 윤상원 열사의 아버님이시다. 어르신은 하늘로 가시기 전, 후손들의 손을 꼭 잡아 주며 "나, 내일 떠난다. 미안하다. 너희들이 있어 행복했다"고 했다. 그리고 아들을 찾아 떠나셨다. 우리는 5월의 진상도 밝히지 못한 채 겨우 '임을 위한 행진곡'만 부르며 보내 드렸으니 또 한 번 죄인이 된 셈이다. 그래서 일 년의 절반을 흘려 보내며 6월의 마지막 날을 한숨으로 보

낼 줄 알았다.

그런데 소름 돋는 대사건이 마치 폭발처럼 일어났다. 뇌관을 연결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고, 성냥을 갖고 온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며, 불을 지핀 사람은 김정은 위원장이다. 화산 폭발이 아닌, 번개 모임으로 이뤄 낸 아름다운 평화의 불꽃. 휴전협정을 맺은 지 66년 만의 쾌거였다. 2019년 6월 30일 오후 3시 46분. 그 시각에 그리기 시작한 평화의 지도를 상상하면서 엄청난 감동을 느꼈다. 장사꾼 대통령으로, 약소국가를 수탈하는 제국주의 악질 대통령으로만 인식되던 트럼프 대통령이 달리 보이는 순간이기도 했다. 이들 정상들의 행동이 '순간의 쇼'가 아닌, 분단을 녹이는 신명 나는 불꽃놀이와 세계평화를 위한 축제로 진화하면 좋겠다.

7월 19일에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광주에서 열린다. 193개국 7266명의 선수가 모여 우정을 다지며 기량을 뽐

내는 대회다. 여기에 북한 선수단이 참여하고, 깜짝스러운 북한 응원단이 분위기를 살리면, 더욱 신명 나는 대회가 될 수 있으리라. 게다가 6월 30일에 약속한 세계 평화에 대한 거창한 실무회담 이전에, '북한 모란봉악단'과 '미국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협연을 한다면 진정한 세계평화를 잇는 다짐들이 될 것이다.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앞 분수대 광장에서 우리 민족의 흥이 서린 '아리랑'과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리고 광주 정신이 흐르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연주된다면 세계가 덩실덩실 춤추지 않겠는가!

이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의 출발이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세계인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아닐까? 6·25와 5월 항쟁 당시 슬프게 떠난 의인들에게 희열의 눈물을 흘리게 할 일은 살아 있는 자의 의무다. 그대들이여, 평화를 아름답게 춤추도록 하자!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0 0633/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김汝牧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체육부 220-0633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사진부 220-0694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